

몰트만의 희망 윤리와 인권 담론

- 강제 이주민 배제에 대한 신학적 고찰

윤이실 (연세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본문

- 몰트만의 희망 윤리
- 몰트만의 희망 윤리가 제시하는 사회적 비전: 인간 존엄성과 권리의 존중
- 희망 윤리의 적용: 강제 이주민의 인권 보호

I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60.12>

• ABSTRACT •

**Moltmann's Ethics of Hope and Human Rights Discourse:
A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Exclusion of Forced Migrants**

Prof. Yoon, I Sil (Yonsei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Jürgen Moltmann explores a wide range of theological themes, including eschatology, ecclesiology, Christology, and pneumatology, and is particularly recognized as a theologian of hope.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Moltmann's ethics of hope serves as a foundation for his discourse on human rights and to apply this framework to the issue of the exclusion of forcibly displaced persons. Moltmann's hope is a redemptive hope, anticipating the realization of ultimate freedom and justice, and is closely tied to his eschatological ecclesiology. Human dignity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re central themes in Moltmann's theology, with a focus on the liberation of the marginalized. His ethics of hope and human rights discourse provide critical insights for overcoming migrant exclusion, xenophobia,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transformative change through these perspectives.

Key words: Jürgen Moltmann; Ethics of Hope; Human Rights; Forced Migrants; Structural Exclusion

I. 들어가는 말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사상은 현대 신학과 윤리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신학적 유산은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몰트만의 신학은 창조에 대한 신학적 관심,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희망, 고통 속에서의 연대, 공동체적 관계성, 사회적 해방과 정의가 긴밀하게 얽힌 다차원적 신학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의 신학은 사회 정의, 평화, 연대, 포용과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하며, 단순한 이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국제 사회의 다양한 불의를 조명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몰트만은 종말론, 교회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등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며, 삼위일체, 십자가, 창조,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깊이 탐구하였다. 그의 사상은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특히 희망의 신학자로서의 몰트만에 주목한다. 희망은 그의 신학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희망의 신학 (*Theologie der Hoffnung*, 1964)』을 비롯한 여러 저서와 논문에서 기독교적 희망을 탐구하고 선포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이미 몰트만의 희망 신학과 희망 윤리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는 몰트만의 희망 윤리가 그의 인권 논의에 어떻게 기초를 제공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이주민 배제 문제에 적용하는 데 목적을 둔다. 몰트만의 희망은 궁극적인 자유와 정의 실현을 기대하는 구속적 희망으로, 그의 종말론적 교회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몰트만의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희망을 중심으로 하며, 이는 교회의 사명과 책임, 그리고 인권에 대한 그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비록 몰트만의 인권 논의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인간 존엄성과 인권 보호는 그의 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실천적 과제로 작용한다. 몰트만

의 희망 윤리와 이에 기반한 인권 담론은 강제 이주민이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주민 문제는 세계화와 정치·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더욱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주민 혐오와 배제, 인권 침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몰트만의 희망 윤리와 인권 담론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연관성을 탐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강제 이주민의 구조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본문

1. 몰트만의 희망 윤리

1) 블로흐의 희망 철학과 몰트만의 신학적 수용

몰트만은 종말론적 희망의 신학을 정립하면서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의 희망 철학에서 중요한 자극을 받았으며, 이를 수용하고 발전시켰다. 특히 블로흐의 철학적 접근은 몰트만이 공적 신학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다.¹⁾ 블로흐는 그의 주요 저작인 『희망의 원리(*Das Prinzip Hoffnung*, 1959)』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적 동인과 밀접하게 연결된 종말론의 중심성을 재조명하며 희망 철학을 확립했다. 그는 종말론이 기존 철학에서 역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목적론적 이해를 재고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²⁾

전통적으로 역사는 과거가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

1) 이종인, 『희망의 두 지평: 에른스트 블로흐와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사상』 (서울: 박영사, 2017), 135.

2) Ernst Bloch, *The Philosophy of Hope*, vol.1, trans. N. Plaice, S. Plaice, and P. Knight (Cambridge: MIT Press, 1986), 142-150.

해되었으나, 유대교와 기독교 종말론은 역사의 의미가 과거가 아닌 미래의 기대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즉, 하나님의 나라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대는 과거와 현재를 미래에 실현될 성취의 예고로 해석하도록 이끈다. 블로흐에 따르면 현재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과거의 축적된 사건들보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현재를 채우고, 이로 인해 역사는 ‘희망’으로 충만해진다.³⁾

블로흐는 이러한 전망을 ‘유토피아적’이라 명명하며, 이 개념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본다.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정치적 상황이 반드시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뜻이며, 미래는 새로운 가능성들로 가득한 ‘노뭉(novum)’을 포함한다.⁴⁾ 따라서 블로흐에게 종말론적 희망은 종말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천국에서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현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뜻한다. 그는 이 유토피아적 희망을 관념적이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허한 ‘추상적 유토피아’가 아닌, 실천적인 ‘구체적 유토피아(konkrete Utopie)’라 설명한다.⁵⁾

2) 희망의 근거와 실체: 부활 및 종말론

몰트만의 희망에 대한 신학적 접근은 블로흐의 사상에서 깊은 영감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블로흐의 철학은 기독교 신학 및 성경 이야기와 공명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의 유토피아적 비전에서 신의 존재는 배제되며, 신의 개입 없이 인간의 자유와 혁명적 저항 정신을 강조하는 세속적 희망 비전을 제시한다.⁶⁾ 몰트만은 블로흐의 영향에서 나

3) Ibid.

4) Ibid., 197-198.

5) Ibid., 222.

6) Ibid. Bloch, *The Philosophy of Hope*, vol.3, 1198

아가 이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희망을 신학적 내러티브 안에서 제시한다. 그는 참된 희망이란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종말론적 약속에서 기인한다고 논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몰트만에 의하면 미래에 대한 기독교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독특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는 부활이 “희망의 근거이자 힘이며 목표”라고 표현한다.⁷⁾ 그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는, 하나님이 불변하는 분 혹은 고통을 겪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임을 보여준다.⁸⁾

몰트만은 특히 종말론을 희망의 신학의 중심에 두고, 그 기반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다. 신약성서의 관점에서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한 성취의 상태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⁹⁾ 몰트만은 부활과 부활한 자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영광과 “버림받은 하나님”(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사이에 “근본적인 단절 속에서의 연속성이자 완전한 모순 속에서의 동일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¹⁰⁾ 다시 말해, 예수의 부활은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미래적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

7) Jürgen Moltmann, *Theology of Hope: On the Ground and the Implications of a Christian Eschatology*, trans. James Leitch (New York: Harper & Row, 1967), 194.

8) Moltmann, *Experiences in Theology: Ways and Forms of Christian Theology*, trans. Margaret Kohl (Minneapolis, Minnesota: Fortress Press, 2000), 90-92.

9) Karl Rahner, “Resurrection” in Karl Rahner (ed.), *Encyclopedia of Theology*, 3rd ed. (London: Burns & Oates, 1981), 1438-1440.

10) Moltmann, *Theology of Hope*, 199.

11) Moltmann, *The Crucified God: The Cross of Christ as the Foundation and Criticism of Christian Theology*, trans. R.A. Wilson and John Bowde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166.

이를 통해 몰트만은 종말론을 단지 “마지막”을 다루는 주제 이상의 의미로 확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신학에서 종말(eschaton)의 개념은 “도래하시는 하나님”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적인 미래 개념과는 구별되는 “도래하는 미래”를 의미한다.¹²⁾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와 창조 세계 안으로 오시는 시점을 가리킨다.¹³⁾ 몰트만은 이러한 도래하는 미래의 시각에서 그리스도의 도래를 단 한 번의 최종적 사건으로 주장하며,¹⁴⁾ 현재에 의해 종말론적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미래에 의해 현재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¹⁵⁾ 이러한 주장은 시간을 신학적으로 재구성하여, 미래가 현재를 형성하고 그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이는 현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며, 그 미래가 오늘날의 신앙적 삶을 이끌어간다는 점을 시사한다.

희망은 몰트만의 종말론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예수로 인해 기독교인은 자신의 미래와 부활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약속은 확정되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며, 현재는 이미 그 종말론적 미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종말론적 미래는 여전히 미래로 남아 있지만, 동시에 현재에도 존재한다.¹⁶⁾ 따라서 몰트만은 기독교인의 삶을 이미 성취된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지 않고, “세상과 그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분열되고 실험적인 상태에 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모든 현실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본다.¹⁷⁾

12) Moltmann, *The Coming of God: Christian Eschatology*, trans.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22.

13) Ibid.

14) 김정형, “종말의 시제로서 도래(Adventus): 위르겐 몰트만의 종말론적 미래 개념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34/37(2012), 37-66, 46.

15) Moltmann, *The Future of Creation: Collected Essays*, trans.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79), 29.

16) Moltmann, *Ethics of Hope*, trans.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37-38.

부활로부터 발견되는 약속과 희망을 비추어 볼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약속은 현실과 상충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현재에서 약속의 완성이 결여되거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그 완전한 성취에 대한 희망을 간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종의 모순을 경험하며 현재를 감내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개인, 사회, 교회, 그리고 우주적 차원에서의 총체적 구원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¹⁸⁾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들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3) 역사적 종말론과 현재의 변화를 향한 희망의 실천

특히 몰트만은 장차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기독교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구원과 종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다. 종말론에 대한 그의 해석은 인간 역사에서 삶에 능동적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¹⁹⁾ 이는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희망으로 이해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에

17) Moltmann, *Theology of Hope*, 31.

18) Ibid., 31-21, 240.

19) Moltmann, *Theology of Hope*, 312-313.

20) 몰트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메시아적 교회론』, 박봉량 등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0), 117.

서 이루어지는 변화와 회복을 의미한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여,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따라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세상의 불의한 구조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몰트만은 이를 ‘역사적 종말론’이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현재의 부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²¹⁾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당신의 삶에 동참하게 하며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도록 이끄심으로써, 종말론적 희망을 앞당겨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고 주장한다.²²⁾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적 종말론’은 현세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종말론이며, 여기서 희망은 개인의 변화와 구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정치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포함한다.

4)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공적 책임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현재 상황의 변화에 대한 희망으로 인해 인간은 자유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 몰트만은 인간이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공통된 미래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존재하는 공통된 미래가 그들을 현세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논의한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괴롭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이를 이겨내려는 힘, 즉 새로운 시작을 추구하는 ‘창조적 자유(libertà creativa)’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²³⁾

21) Moltmann, *The Coming of God*, 233.

22) Moltmann, *Il Dio Crocifisso: La Croce di Cristo, Fondamento e Critica della Teologia Cristiana* (Brescia: Queriniana, 2013), 237-238.

23) 전인걸, “미래적 자유 개념에 관한 연구- 한나 아렌트와 위르겐 몰트만의 인간 이해와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53 (2024): 229-262, 244.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오는 창조적 자유의 근본적 의미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몰트만은 세 가지 유형의 자유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지배로서의 자유’ 혹은 ‘주체성으로서의 자유’로, 서구 근대 사회에서 이해되었던 자유이며 몰트만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형태이다. 여기서는 투쟁에서 승리하고 권력을 쥔 자들만이 자유한 반면, 패배하여 지배당하는 이들은 굴복하고 종속된다고 여겨진다.²⁴⁾ 두 번째는 ‘친교의 자유’ 혹은 ‘공동체로서의 자유’로, 인간이 경험하는 ‘상호주관적인(관계들 사이에서의 주관적인) 관계’에서 갖는 ‘의사소통 (혹은 친교)의 자유’를 의미한다.²⁵⁾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존중과 인정으로 인해 경험되는 자유이며, 몰트만은 이것을 ‘사랑이나 연대라고도 부르는 자유의 사회적 측면’이라고 설명한다.²⁶⁾ 마지막 유형은 ‘미래로서의 자유’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현재를 초월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창조적 활동으로 드러난다.²⁷⁾ 여기서 자유는 과거의 사건이나 이미 존재하는 대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 인간의 한계와 현재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에 대한 기다림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이며, 보이지 않는 미래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에 대한 참여’로 인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향하는 자유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몰트만은 이를 ‘창조적 자유’ 혹은 ‘창조적 기다림으로서의 자유’라고도 표현한다.²⁸⁾ 그는 이 미

24) Jürgen Moltmann, *Trinità e Regno di Dio: La Dottrina su Dio* (Brescia: Queriniana, 1983), 229.

25) Moltmann, *Dio nel Progetto del Mondo Moderno: Contributi per una Rilevanza Pubblica della Teologia* (Brescia: Queriniana, 1999), 154.

26) Moltmann, *Lo Spirito della Vita: Per una Pneumatologia Integrata* (Brescia: Queriniana, 1994), 141-142.

27) Moltmann, *Dio nel Progetto del Mondo Moderno*, 156.

28) Moltmann, *Lo Spirito della Vita*, 143.

몰트만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자유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전인걸의 “미래적 자유 개념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래로서의 자유가 부활과 그로 인한 희망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자유라고 설명한다.

몰트만은 미래로서의 자유 개념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에 참여하는 책임을 갖게 하며, 이러한 책임은 개인의 도덕성이나 신앙적 순종을 넘어서 사회 구조의 변혁을 향한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공적 책임에 대해서는『정치신학 정치윤리(Politik der Hoffnung, 1970)』와 『정의가 미래를 창조한다(Gott in der Geschichte, 1999)』와 같은 저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며, 종말론과 희망에 대한 논의는 공적 책임과 정치윤리의 기반을 제공한다. 몰트만은 ‘창조적 기다림으로서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적 신앙과 미래에 대한 기다림에만 중점을 두고 내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직면한 현실적 삶을 도외시하지 않고 사회적 변화에의 추구를 포함한다고 강조한다.²⁹⁾ 교회는 정의와 평화를 향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³⁰⁾ 이러한 전망은 사회와 정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윤리의 방향을 시사한다.

2. 몰트만의 희망 윤리가 제시하는 사회적 비전: 인간 존엄성과 권리의 존중

이렇게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통해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정의와 평화가 현재의 세상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현실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의 신학적 시각은 인권 담론과 깊이 연결되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29) Moltmann, *La Via di Gesù Cristo: Cristologia in Dimensioni Messianiche* (Brescia: Queriniana, 1991), 45.

30) Moltmann, *Il Dio Crocifisso*, 36-37.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는 희망 윤리의 이론적 기반으로 해서 종말론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희망 윤리와 종말론이 제시하는 사회적 비전으로서의 인권 존중에 대한 몰트만의 논의를 심도 있게 살펴 보고자 한다.

1) 인간 존엄성: 인권의 출처와 근거

몰트만 신학에서 희망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려는 현재적 힘으로 작용한다. 그의 인간 존엄성 논의는 하나님, 인간, 그리고 창조 세계 간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토론의 중심 축을 형성하며, 그의 인권 담론에서 핵심 가치를 이룬다.

몰트만은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명확히 구분하며, 인간 존엄성이 인간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 존엄성은 모든 인권의 출처(source)와 근거(ground)이며, 모든 인권은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도록 촉진한다”고 말한다.³¹⁾ 존엄성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고유한 가치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이다. 이는 나눌 수 없고 양도될 수 없는 특성으로, 다양한 인권이 존재하지만 존엄성은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존재한다. 몰트만은 인권 목록이 완전하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 존재의 총체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인간 존엄성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개별 인권 요소들이 비로소 조명된다고 설명한다.³²⁾

31) Moltmann, *On Human Dignity: Political Theology and Ethics*, trans.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1984), 9.

32) Ibid.

2) 관계적 차원에서의 인간 존엄성

몰트만은 그의 저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Über die Würde des Menschen, 1984)』에서 인간 존엄성의 신학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탐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적 희망을 통해 정치적 변혁의 동력을 찾고 있다. 이 저서에서 그는 존엄성에 대한 주장을 집약하는 단락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 교회의 신학적 기여를,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지신 권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³³⁾

보다 구체적으로, 몰트만은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바탕으로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세 가지 핵심 주제로 설명한다. 이 세 가지 주제는 모두 관계적 차원에서 인권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개별 인간이 지닌 본질적 존엄성과 권리이다. 둘째,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서 나아가 미래 세대에 대한 권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확장된 이해를 제시한다. 셋째,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 하나님과 개별 인간의 관계

먼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co-responding to God) 존재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다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다.³⁴⁾

33) Ibid., 15.

인간 존엄성은 인간의 속성이나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과 약속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며, 인간 존재에 초월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절대 손상되거나 유린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개인이나 사회적 배경, 상황적 요소도 예외가 될 수 없다.³⁵⁾

몰트만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인간 존엄성의 핵심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³⁶⁾ 그는 이 신실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그의 부활로 메시아적 새 생명의 도래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태도라고 설명한다.³⁷⁾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강조는 몰트만 신론의 중심에 있으며, 그는 하나님의 고난 가능성을 하나님의 변화 가능성과 신실함으로 설명한다. 몰트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혹은 항구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위한 고난을 설명한다: “약속의 하나님의 본질과 정체성은 역사를 초월하거나 넘어서는 그분의 절대성에 놓여 있지 않고,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하는 관계의 항구성과 그분의 선택하시는 자비와 신실하심의 항구성 안에 근거한다...³⁸⁾” 하나님은 고난당할 수 없다. 그분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34) Ibid., 11.

35) 윌트겐 몰트만,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신학의 정립을 지향하며』, 광미숙 옮김 (서울: 동연, 2009), 176.

36) Moltmann, *On Human Dignity*, xi.

37) 몰트만,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김균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30, 123.

38) Moltmann, *Theology of Hope*, 116; *The Crucified God*, 229.

.³⁹⁾ 이처럼 몰트만의 신론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⁴⁰⁾

(2) 타인 및 미래 세대와의 관계

더불어 몰트만은 타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 이행의 필요성을 명시한다. 그는 인권이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하며, 인권의 사회적 차원은 필연적으로 타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책임을 수반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인간은 자유와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⁴¹⁾ 이러한 개별적 및 사회적 권리는 타자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며, 개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인간은 삶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동등하게 창조된 모든 타자를 위해 책임 있게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동할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과 타인에게 책임이 있다. 몰트만은 이러한

39) Moltmann, *The Ethics of Hope*, 168

40) 신옥수, 『몰트만 신학 새롭게 읽기』(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88.

41) 몰트만은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가 분리되지 않으며, 함께 조화를 이루며 전체를 형성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과 사회는 상호 의존적이며, 개인적 자유 역시 타인과의 연대 안에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역사에서는 개별적 권리에 치우쳐 사회적 권리가 간과되며, 몰트만은 이러한 권리들이 하나의 문서 안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음을 비판한다. (『세계 속의 하나님』, 178)

권리와 의무가 양도 불가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또한 개별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간의 권리와 역할을 존중하는 것은 어떠한 사회와 정부의 규범과 통치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²⁾

또한, 몰트만은 타자의 인권 존중과 의무 이행이라는 신학적 함의를 다음 세대와의 관계로 확장한다. 그는 인간이 미래 세대의 권리 보장과 계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인류가 핵무기 문제와 생태계 위기에 직면해 있어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다.⁴³⁾ 그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 보편적인 인권 개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권의 보편성이 제대로 이해되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권리 보호의 대상과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자기 파괴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한다.⁴⁴⁾ 따라서 인권의 진정한 보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포함한 인류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몰트만이 제시한 인간 존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 세대와의 관계에서 갖는 함의를 통해 그의 신학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온 인권 침해를 비판하며 기독교적 희망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을 찾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2) Moltmann, *On Human Dignity*, 23. 그러나 동시에 몰트만은 권리 존중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 이는 인권에 대한 세 번째 함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43) Moltmann, *On Human Dignity*, 11-21, 26-28.

44) *Ibid.*, 175-176.

3) 인간 존엄성의 정치 윤리적 함의

이와 같은 신학적 이해는 인간 존엄성의 출처와 방향성에 대한 두 가지 함의를 드러낸다. 우선, 인간 존엄성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치이다. 그러나 존엄성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존엄성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존엄성의 보호 및 구현은 인권의 존중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 존엄성이 세상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기반하고 있다면, 인권은 인간 사회에서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과거와 미래 세대를 포함하는 공동체적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책임과 의무를 반영한다.⁴⁵⁾ 몰트만이 제시하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 개념은 그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정치 신학의 기초로 작용한다.

몰트만은 특히 존엄성의 실현이 법적 및 제도적 차원에서 구현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국가와 법, 경제적 공공 조직은 모든 개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인간적인 공공기관'이 될 수 있다.⁴⁶⁾ 권력자와 피권력자, 통치자와 피통치자는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서로를 인식해야 하며, 이는 법적 평등으로 나타나야 한다. 몰트만은 미국 헌법이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대표적인 예로 언급하며,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원칙은 지배권이 행사되는 모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⁴⁷⁾ 지배층은 법률에 복종하며 피지배층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만약 인간이 공공기관에서 수단화되고 상품화되며 오직 종속된 존재나 노동력으로만 다루

45) Ibid.

46) 몰트만,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176-177.

47) 앞의 책, 176.

어진다면,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기관 자체가 정당성을 잃게 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한다.⁴⁸⁾

4) 몰트만의 희망 윤리와 인권 논의

몰트만의 인권에 대한 이해는 그의 종말론적 희망 윤리 및 정치 윤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래의 종말론적 희망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모든 인간의 권리 보호는 현재 이곳에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들의 인권 보호는 법적 및 사회적 개념을 포함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는 몰트만이 강조한 ‘창조적 기다림의 자유’가 보다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실천되는 의미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

48) 앞의 책, 177.

본 논문은 몰트만의 논의가 가지는 강점과 이를 현대 사회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무엇보다 법의 불완전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몰트만은 인권 보장에 있어서 법의 중요성과 법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며, 법의 수립과 이행 없이 실질적인 인권의 보장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만으로 모든 인권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법은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으며,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법의 준수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권 보호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편견이나 부정부패가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 많은 국가의 헌법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여전히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소외되며 차별받는 현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은 법 조항의 세부성 부족, 법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 법을 넘어서는 윤리성의 문제 등 여러 요소에 기인한다. 따라서 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인권 보호에 여러 제약을 드러낼 수 있다. 몰트만은 법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며, 법을 넘어서 인권의 본질적 의미와 인간의 도덕적 의무, 공동체적 책임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한다. 하지만 법의 제정 및 집행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되고 논의되지 않으면 법의 의미와 위협성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비판의 요지이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법적 규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와 관점을 반영해야 하며, 시대착오적이거나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법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희망 윤리의 적용: 강제 이주민의 인권 보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만큼 몰트만이 주장하는 희망 윤리 및 인권 논의는 많은 사회적 집단이나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가장 취약하고 자유와 정의를 열망하는, 또 필요로 하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는 많은 집단 중에서도 법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는 강제 이주민이다. 난민, 망명 신청자, 국내 실향민과 같은 강제 이주민은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불의를 삶의 모든 측면에서 경험하며, 사회적, 경제적, 법적, 그리고 심리적 차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강제 이주민의 보호와 지원은 많은 국가들에서 심각한 국제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들의 이주 원인이 국가 경계를 넘어 여러 국가와 지역의 요소를 수반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 역시 국제적 차원의 대화와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1) 강제 이주민이 경험하는 구조적 배제

강제 이주민이란 ‘박해, 분쟁, 일반화된 폭력 또는 인권 침해의 결과로 인해 이주한 사람’을 의미한다.⁴⁹⁾ 이러한 강제성의 경계는 항상 뚜렷하지 않으며, 실제로 많은 이주민들이 외부적인 강요와 함께 자발적인 이유로

49) 이 정의는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가 제시한 강제이주(forced migration)의 정의를 따른다. UNHCR, “UNHCR Global Trends - Forced Displacement in 2014,” 18 June 2015. Retrieved 25 May 2020.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강제 이주민’(forced migrant)은 ‘비자발적 이주민’(involuntary migrant)과 유사한 개념을 포함한다. 자발적 이주민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주를 결심하는 것과 달리, 비자발적 이주민은 정치적 탄압, 전쟁, 자연재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주하게 되는 사람들을 뜻한다. ‘강제 이주민’은 그 중에서도 특히 물리적 혹은 법적 강압에 의해 거주지를 떠나는 경우를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제 이주민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지만, 그 범위를 넓혀 비자발적 이주민을 포괄하는 논의도 다룬다.

이주를 결심한다.⁵⁰⁾ 예를 들어, 난민의 경우 본국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이주를 결심한 것은 강제 이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타국으로 이주했다면 자발성과 강제성이 혼재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성이 혼재된 경우에도,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했던 이주민들은 사회적으로 불안정을 경험하고 취약한 계층에 놓여 있으며, 이주국에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 실향민, 난민, 망명 신청자, 밀입국자, 무국적자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들은 이주국에서 극심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 그리고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⁵¹⁾

강제 이주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발생하지만, 법적,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 구조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 유럽 국가들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방향보다는 배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개정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2023년 ‘이민 통제와 통합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민법(Le projet de loi visant à «contrôler l’immigration et améliorer l’intégration»)’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수정을 거쳐 헌법위원회의 심사에 의거하여 최종안이 2024년 1월 26일 공포되었다.⁵²⁾ 개정된

50) Oliver Bakewell, “Unsettling the Boundaries between Forced and Voluntary Migration,” in *Handbook on the Governance and Politics of Migration*, ed. Emma Carmel et al. (Cheltenham, United Kingdom: Edward Elgar Publishing, 2021), 124-136, 128.

51) 대한민국 사회에서 역시 다양한 유형의 비자발적 이주민이 소외와 배제, 인권침해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적응 및 사회 통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출신 이주민들에는 난민, 망명 신청자,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그리고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미등록 이주민 등이 있다. 이들은 여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법적 신분의 불인정으로부터 오는 생존의 위협부터 개인적 상호작용에서의 차별, 사회적 기회의 박탈, 학대와 착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띤다.

52) T. Barnaud, “Loi immigration: Que contient le texte examiné à partir de lundi

이민법은 이주자의 체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조항과 사회 질서를 헤치는 이주민에 대한 추방 조치를 더욱 엄격히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민 조건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³⁾ 프랑스의 이민 개혁 정책은 ‘이민 통제’와 ‘이주민의 사회 통합 개선’이라는 두 가지 주된 목적 중 전자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깊이 정치적 성격을 띤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진보 진영과 노동조합에게 지지를 받았으나, 공화당 및 극우정당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⁵⁴⁾

미국에서 이주민 문제는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작용해왔으며, 최근 선거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주 정책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가진 정치인들과 정당은 이주민 문제를 사회 불안, 경제 위기, 국가 안보 등의 문제와 연결시키며, 이주민 추방 강화와 국경 장벽 설치 등을 제안하며 그들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⁵⁵⁾ 이러한 시기에는 특히 이민자에 대한 혐오감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이주민 배제를 정당화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책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현행법의 미흡한 혹은 부적절한 이행으로 이주민을 통제해 왔다. 대표적으로 난민 지위

au Sénat?” L’Express, November 5, 2023, <https://www.lexpress.fr/politique/loi-immigration-que-contient-le-texte-examine-a-partir-de-lundi-au-senat-USFBJ2PXDREBS5P4S4KQSAPB2UI/>.

53) Gouvernement de France, “Loi du 26 janvier 2024 pour contrôler l’immigration, améliorer l’intégration,” 2024, <https://www.vie-publique.fr/loi/287993-loi-immigration-integration-asile-du-26-janvier-2024>.

54) Franceinfo, AFP, “Loi immigration: Pourquoi les mesures censurées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pourraient de nouveau faire parler d’elles,” Franceinfo, January 26, 2024, https://www.francetvinfo.fr/politique/les-republicains/loi-immigration-pourquoi-les-mesures-censurees-par-le-conseil-constitutionnel-pourraient-de-nouveau-faire-parler-d-elles_6327378.html.

55) Nathan Denzin, “Why Immigration Is Central to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PBS Wisconsin News, October 3, 2024, <https://pbswisconsin.org/news-item/why-immigration-is-central-to-the-2024-presidential-election/>.

승인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1.3%에서 2.6% 사이에서 변동해왔으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⁵⁶⁾ 대한민국은 1993년 난민협약(1951 Refugee Convention)에 가입하며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인정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난민 승인률과 난민 정책의 미비는 난민 보호에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난민 지위를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 이주민을 둘러싼 사회적 편견, 정치적 담론, 제도적 결함은 그들에 대한 배제가 사회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렇게 국가에 따라 배제의 유형과 양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제 이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그들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부정당하는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주민들은 생존과 안전,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침해당하고,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와 이주할 권리 또한 부정당하고 있다. 이주민 문제는 한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긴장과 갈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민의 수용 및 그들의 권리 보호와 지원에 대한 논의는 종종 정치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2) 몰트만의 인권 담론: 배제에 대한 비판

이러한 국제적 현실에서 몰트만의 인권 담론은 강제 이주민 배제에 대한 비판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몰트만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는 존엄성을 강조한다. 개개인은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엄한 존재임을 명시한다.⁵⁷⁾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고

56) Korean Ministry of Justice, Refugee Status Recognition Statistics (2023), <https://www.moj.go.kr/ENG/index.do>.

57) 몰트만,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176.

해서 이들을 타자화하고 우월감을 바탕으로 배척하는 것은 인종주의에 불과하다. 또한, 이주민 개개인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집단에 대한 선입견이나 오해를 바탕으로 혐오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비이성적인 감정이다.⁵⁸⁾ 몰트만의 논의는 이러한 감정, 태도, 행동이 이주민 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지닌 타인을 보호하고 그들과 협력 및 연대할 책임을 거부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차별을 넘어, 사회 구조적으로 강제 이주민을 배제하는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집단 이데올로기에 의해 인간 사회의 타락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는 인간의 이기심과 그로 인해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이 외면당해 온 현실을 반영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동체 차원의 깊은 반성을 요구한다.

3) 몰트만의 희망 윤리: 창조적 기다림의 자유

(1) 강제 이주민의 존엄성 인식 및 변화에 대한 희망

몰트만의 희망 윤리는 이러한 타락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도래하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은 강제 이주민이 처한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변화와 회복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할 수 있다. 이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의 삶의 최종적인 결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의 고난을 넘어 미래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들 한 명 한 명은 여전히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변화의 여정 속에서도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이 끝까지 보존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이겨내고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몰트

58) 케틀린 엠케, 『혐오사회』, 정지인 옮김 (서울: 다산초당, 2017), 18.

만이 강조하는 ‘창조적 자유’의 발현인 것이다.

종말론적 희망의 메시지와 인권 논의는 강제 이주민들의 창조적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 그들 스스로 소망을 품고 불의와 싸우는 것을 넘어, 이웃된 모든 개인과 집단이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존엄성의 존중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화에 힘써야 할 주체는 여러 집단에 걸쳐 있다. 강제 이주민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이들—강제 이주민과 상호작용하는 이웃, 그들이 속한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 사회—모두가 구조적 불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나아가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원동력을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2) 개인 및 집단의 책임과 역할

먼저, 몰트만의 논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책임과 변화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의 인권 담론에서 존엄성의 존중은 인간 관계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개인 간의 상호작용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제 이주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웃은 그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특히 강제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편향된 정보를 피하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강제 이주민들 또한 이주국에 적응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통합은 단순히 단일한 문화를 형성하는 융합 과정⁵⁹⁾이 아니라, 주류 사회 구성원이 이주민의 취향, 문화, 생활 방식, 그리고 가치관을 ‘인정’

59) Robert E. Park and Ernest Burgess,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735.

하고 ‘수용’하며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호적인 과정이다.⁶⁰⁾ 자신이 가진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며, 전통은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강제 이주민의 삶의 방식 또한 그 변화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이러한 개인적 움직임은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상호작용에서의 변화만으로는 이주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몰트만은 이러한 한계를 강조한다. 개인적 차원의 변화에 그친다면 이는 그가 제시한 ‘친교의 자유’나 ‘의사소통의 자유’에 머무를 뿐이다. 상호작용과 친교를 통해 연대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 연대만으로는 사회 전반의 인식이나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강제 이주민이 겪는 배제 문제에 제도적, 사회 구조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교의 자유’를 넘어 몰트만이 강조한 ‘창조적 기다림의 자유’를 실현하려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공적 책임 수행과 정치적 윤리 실천의 중요한 과정이다. 강제 이주민이 신분을 보장받고 사회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며, 몰트만이 강조하는 공동체적 변화는 억압받는 자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대변하기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 차원의 인권 보호는 강제 이주민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으며, 현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기반이 된다. 이는 사회를 넘어 국제적 연대와 협력, 그리고 공정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자 방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강제 이주민이 이주국에서 법적 신분을 보장받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을

60) 헤인 데 하스,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김희주 옮김 (서울: 세종, 2023), 252.

마련하고, 기존의 미비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강제 이주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겪는 인권 침해를 문제로 삼으며, 배제나 차별이 아닌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난민 심사는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나 외교적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기구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심사 기간 동안과 심사 후 난민 승인자 및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변화는 공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지역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⁶¹⁾

또한 지역사회에서 개인 자원봉사자와 시민 단체가 협력하여 강제 이주민 지원을 위한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네트워크는 각 참여자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여 효과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들은 정보 제공, 법적 지원 연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직업 훈련 등을 통해 강제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강제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소셜 미디어와 같은 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연대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다. 이주민을 향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이러한 노력은 공동체 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 자치 단체 및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강제 이주민을 위한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규제하

61) 법적, 제도적 제언은 이일의 글로부터 큰 영감을 받고 참고하였다. 이일, “제주 피난 예멘 난민을 통해 비춰본 난민정책의 현주소,” 「2018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추계학술 세미나 발표논문집」 (2018): 11-24, 22-24.

는 다양한 법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⁶²⁾ 혐오 감정과 혐오 표현은 여러 형태의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며,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킨다. 이주민의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사회에서 신분을 보장받고 적응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혐오에 대한 규제는 이러한 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 하나의 법 개정이나 교육과정 변화도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이주민이 진정으로 현지 사회 구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인 것이다.⁶³⁾ 혐오를 규제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혐오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제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혐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과정도 포함된다. 따라서 세계시민주의와 인권 교육 등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 역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III. 나가는 말

강제 이주민을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든 인간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몰트만의 희망 윤리와 인권 담론은, 인류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의무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거룩한 사명임을 상기시켜 준다.⁶⁴⁾ 몰트만의 신학은 단순히 종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닌, 종말론적 희망을 통해 현재의 불의를 극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62) 앞의 글.

63) See Richard Alba and Victor Nee, "Rethinking Assimilation Theory for a New Era of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 (1997): 826-874, 828.

64) 몰트만은 이러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을 개신교 신학적 용어인 '소명(calling)'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Theology of Hope*, 330-333을 참고하라.

적극적인 신앙을 촉구한다. 그의 사상 속에서 인권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과 직결된다. 집단적, 제도적 차원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은 현재의 불의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강제 이주민 문제는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연대가 요구되며, 몰트만의 신학적 틀은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새로운 변화를 향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 세대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더 나아가 차별과 배제를 이해하며 이를 극복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몰트만이 강조한 중요한 지점인, 바로 다음 세대와의 협력과 그들과의 공존을 도모해갈 수 있는 것이다.

혹자는 차별과 배제를 낳는 사회 구조의 변혁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몰트만의 사상이 결국 추상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유토피아적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회의감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의 오히려 미래지향성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며, 희망의 윤리가 지닌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도전이 존재할지라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변화의 구체적인 방향을 그려 나가는 바탕이자 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힘이라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 Moltmann, Jürgen. *Dio nel Progetto del Mondo Moderno: Contributi per una Rilevanza Pubblica della Teologia*. Brescia: Queriniana, 1999.
- _____. *La Via di Gesù Cristo: Cristologia in Dimensioni Messianiche*. Brescia: Queriniana, 1991.
- _____. *Lo Spirito della Vita: Per una Pneumatologia Integrale*. Brescia: Queriniana, 1994.
- _____. *Trinità e regno di Dio: La dottrina su Dio*. Brescia: Queriniana, 1983.
- Alba, Richard and Victor Nee. "Rethinking Assimilation Theory for a New Era of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 (1997): 826-874.
- Bloch, Ernst Bloch. *The Philosophy of Hope*, vol.1. Translated by N. Plalice, S. Plalice, and P. Knight, Cambridge: MIT Press, 1986.
- Barnaud, T. "Loi immigration: Que contient le texte examiné à partir de lundi au Sénat?" *L'Express*, November 5, 2023. <https://www.lexpress.fr/politique/loi-immigration-que-contient-le-texte-examine-a-partir-de-lundi-au-senat-USFBJ2PXDRBS5P4S4KQSAPB2UI/>.
- Denzin, Nathan. "Why Immigration Is Central to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PBS Wisconsin News*, October 3, 2024. <https://pbswisconsin.org/news-item/why-immigration-is-central-to-the-2024-presidential-election/>.
- Franceinfo, AFP. "Loi immigration: Pourquoi les mesures censurées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pourraient de nouveau faire parler d'elles." *Franceinfo*, January 26, 2024. https://www.francetvinfo.fr/politique/les-republicains/loi-immigration-pourquoi-les-mesures-censurees-par-le-conseil-constitutionnel-pourraient-de-nouveau-faire-parler-d-elles_6327378.html.
- Gouvernement de France. "Loi du 26 janvier 2024 pour contrôler l'immigration, améliorer l'intégration." 2024. <https://www.vie-publique.fr/loi/287993-loi-immigration-integration-asile-du-26-janvier-2024>.

Korean Ministry of Justice. Refugee Status Recognition Statistics (2023).
<https://www.moj.go.kr/ENG/index.do>.

Moltmann, Jürgen. *Ethics of Hope*. Translated by Margaret Kohl. Fortress Press, 2012.

_____. *Experiences in Theology: Ways and Forms of Christian Theology*. Translated by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0.

_____. *On Human Dignity: Political Theology and Ethics*. Translated by Margaret Kohl. Fortress Press, 1984.

_____. *The Coming God: Christian Eschatology*. Translated by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_____. *The Crucified God: The Cross of Christ as the Foundation and Criticism of Christian Theology*. Translated by R.A. Wilson and John Bowde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_____. *The Future of Creation: Collected Essays*. Translated by Margaret Kohl. Fortress Press, 2007.

_____. *Theology of Hope: On the Ground and the Implications of a Christian Eschatology*. Translated by James Leit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Park, Robert E. and Ernest Burgess.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UNHCR, "UNHCR Global Trends - Forced Displacement in 2014," 18 June 2015. Retrieved 25 May 2020.

김정형. "종말의 시제로서 도래(Adventus): 위르겐 몰트만의 종말론적 미래 개념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34/37(2012), 37-66.

몰트만, 위르겐.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김군진 옮김. 서울: 대 한기독교서회, 2017.

_____.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메시아적 교회론』, 박봉량 등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0.

_____.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신학의 정립을 지향 하며』, 광미숙 옮김. 서울: 동연, 2009.

신옥수. 『몰트만 신학 새롭게 읽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전인걸, “미래적 자유 개념에 관한 연구- 한나 아렌트와 위르겐 몰트만의 인간 이해와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53(2024): 229-262.
- 엠케, 케틀린, 『혐오사회』, 정지인 옮김. 서울: 다산초당, 2017.
- 이일, “제주 피난 예멘 난민을 통해 비춰본 난민정책의 현주소,” 『2018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18): 11-24.
- 이종인, 『희망의 두 지평: 에른스트 블로흐와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사상』. 서울: 박영사, 2017.
- 하스, 헤인 데,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김희주 옮김. 서울: 세종, 2023.

논문투고일: 2024년 11월 15일

심사개시일: 2024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09일

• 국 문 초 록 •

위르겐 몰트만은 종말론, 교회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등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며, 희망의 신학자로서 특히 주목받는다. 본 논문은 몰트만의 희망 윤리가 그의 인권 논의에 어떻게 기초를 제공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강제 이주민 배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몰트만의 희망은 궁극적 자유와 정의 실현을 기대하는 구속적 희망으로, 그의 종말론적 교회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간 존엄성과 인권 보호는 몰트만 신학의 핵심 주제로, 소외된 이들의 해방을 지향한다. 이러한 희망 윤리와 인권 담론은 이주민 혐오와 배제, 인권 침해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며,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주제어: 위르겐 몰트만, 희망의 윤리, 인권, 강제 이주민, 구조적 배제
